

외주화 구조조정 · 솜방망이 중대재해 처벌, 하청노동자 또 죽었다

18t 구조물에 깔려 현중 하청노동자 사망 ... 노조, 위험 외주화 금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전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중대 재해로 숨졌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업종노조연대가 함께 자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을 규탄하고 생명 ·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9월 20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패널공장 서편 PE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박 아무개 노동자가 떨어진 천연가스 액(NGL) 저장탱크 압력 테스트 캡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박 씨는 탱크 앞부위인 테스트 캡을 제거가유징하던 중이었다. 작업 중 절단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밑에서 일하던 박 씨를 덮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성익 노동안전실장은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안전 의무를 내버려 둔 현대중공업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며 한탄했다. 조성익 실장은 “무게가 18t에 달하는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작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반드시 크레인에 테스트 캡을 매달아 고정한 뒤 작업해야 하는데, 현중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강행했다”라고 보고했다.

테스트 캡 분리작업의 표준작업지도서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헤드를 고정하고 헤드 하부에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추락 · 낙하 등 위



험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감시자 배치도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날 크레인 설치와 안전감시자 없이 박 씨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두 명만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 조사를 통해 ▲위험작업 시 기본 안전조치 미시행 ▲안전작업표준 미작성과 미준수 ▲해체작업 종료 후 표준작업지시서 작성 ▲원청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을 확인했다. 조성익 실장은 “해당 하청업체 일일 작업계획서에 작업 노동자들의 확인 서명이 없었다”라며 “안전수칙도 모른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사무국장은 “현대중공업의 이윤 극대화 경영과 이에 따른 무리한 외주화가 이번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구조조정과 휴업 조치로 정규직 노동자 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무리하게 공정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조경근 사무국장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노동자 삼만 오천여 명을 구조조정을 했다”라며 “조선 경기 활성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원청은 임금 낮은 비정규직을 쓰려고 공사 프로

젝트를 하청업체에 계속 남기고 있다”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조경근 사무국장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법률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경근 사무국장은 “지금 현대중공업 재벌은 정몽준 일가 경영권 승계 이외 시안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 · 하청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 지분이 하청노동자를 또 죽였다”라며 “예견된 죽음이고 명백한 현대중공업의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호 지회장은 “언제까지 이런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일하다 죽는 일들이 왜 계속 생기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라며 “또 무슨 나쁜 소식이 들릴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라고 탄식했다.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던 이성호 지회장이 벌인 도중 눈물을 흘리며 울먹거리며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성호 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지회장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기업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며 “죽음의 외주화와 중대재해는 법 제도로 확실히 막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원 · 하청 사업주 구속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지침 등 개악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전면 제 · 개정 등을 요구했다.

쫓겨난 길도, 돌아가려는 길도 험난한 불법파견 노동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염원 오체투지 ... 노조, “시간 없다. 투쟁 수위 높ی겠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지회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지역 연대단체들이 함께 아스팔트에 몸을 던졌다.

노조 인천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9월 25일 부평 문화의 거리를 출발해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인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지엠 문제인 지라 시민들이 오체투지 행렬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다.

“해고자 전원 복직, 불법 파견 철폐”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를 기어 철탑 농성장이 있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총력투쟁 문화제’를 시작했다.

오체투지로 몸이 고단할 법도 하건만 총력투쟁 문화제에 참석한 조합원들 표정은 밝았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힘들고 거친 농성 투쟁에 오체투지가 도리어 힘이 된 듯하다.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도 오체투지에 참가했다. 두대선 지부장은 문화제에서 금속노조 불법파견 철폐 총력투쟁을 촉구했다. 두대선 지부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투쟁사에서 “해고자들은 복직 의지를 더 세우고, 조합원들과 지역 연대단체들은 연대의 마음을 행동으로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오체투지로 공장 앞으로 오는 동안 철탑 망루에서 108배를 했다. 이영수 조합원은 바닥에 엎드리는 조합원들을 보며 울컥했던 심정을 전하며 “쫓겨나게 버티고 투쟁해 반드시 복직하고 불법 파견 문제도 해결하겠다”라며 연대해준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영수 조합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설치한 철탑 망루 위에서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31일

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년 부평2공장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 충원에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인천지부는 부평2공장을 2교대제로 전환하면 700여 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망루 농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동조 단식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제시안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오는 10월 초에 2020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인원 배치를 결정한다. 지회는 늦어도 10월 안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초에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무기한 단식을 비롯해 산별 연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9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회 참여 적극 조직을 결의했다.